

용인지역 4개 절터 새로 발견

조계종 발굴조사단 '용인의 불교유적' 보고서

용인지역에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재의 실태가 밝혀졌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해자 총무원 문화부장)은 지난 해 5월부터 용인 지역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용인의 불교유적>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단순한 불교유적 현황조사가 아니라 용인 지역 불교사 및 불교유적의 특징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 처음이다. 지역 불교유적 조사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굴조사단으로서도 지난해 <북한산의 불교유적>에 이어 또 하나의 성과다.

조사단이 확인한 용인 일대 전통사찰 및 절터는 모두 24개. 이는 1942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수록된 22개보다 많은 것이다. 또 이 대에는 미령리 석불입상, 가창리 석불입상, 두창리 삼층석탑 등 20개의 불상·부도·탑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미 알려진 절터 이외에 4개의 절터 새로 발견했다. 조사단은 이번엔 불당굴, 절골말로 불리는 지역의 현지 조사를 통해 하갈리사지, 공세2리사지, 덕성리사지, 상현2리사지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고문헌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절터 2개를 확인한 것이다. 고림리사지와 송전리사지는 그 동안 위치만 알려졌을 뿐 옛 기록이 없어 장건연대 등을 알 수 없었으나 유물 분석 결과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고찰임을 밝혀냈다.

송전리사지로 불리는 절터의 이름을 확인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입막새 기와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한 결과 이 절터가 1448년에 세워진 도립사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장 해자 스님은 "현장 정밀 지표·실측조사를 통해 불교문화재, 사찰



○양지리사지 주변 공사현황

상현2리사지 등은 골프장 건설과 건물 신축 등으로 파괴됐으며 4곳은 경작과 주택지 등으로 현장 조사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 1942년 조선총독부 통계자료보다 불탑은 3기, 불상은 무려 99구가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순호 책임연구원은 "난개발에 따라 조사도 없이 불교유적이 파괴되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며 "땅 속에 묻혀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물의 경우 더 많이 쉽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골프장 건설 - 건물신축 등 난개발 10여곳 학술조사 없이 파괴

터, 주요 사찰에 대한 상세한 현황기록과 현존하는 문화재에 대한 실측도면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과 훼손에 따른 보존의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사찰터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0곳이 기본적인 학술

조사 없이 파괴된 것으로 밝혀져 이 지역 불교유적에 대한 보존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어비리사지(금단사지)와 두창리사지, 천리석조여래입상이 있던 곳 등이 저수지가 생기는 바람에 수몰된 것을 확인했다. 양지리사지, 송전리사지,

"미륵신앙은 사회변혁 이념"

윤승용 씨 '미륵신앙과 청정사회' 논문

"불교학계나 인문·사회학계는 미륵신앙을 현대 사회의 변혁 이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윤승용(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사진)씨는 2월 27일 제3회 미륵사상학술대회에서 '미륵신앙과 청정사회'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금의 미륵신앙이 불교나 민간신앙, 신종교 등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데 주목한 윤씨는 "학계에서는 그 특성 간의 차이·공통점을 연구하고, 동시대 미륵신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회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씨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미륵신앙은 현대화되고, 모든 단체와 계층을 아우르는 희망(希望)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결론에서 "학계의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어진 미륵신앙은 개인의 업(業)과 사회의 공업(供業)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사회윤리도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원각경은 禪經 아니다" 조운호 씨 주장

"사상적 기반 여래장 사상"

<원각경>은 <좌선삼매경>이나 <달마라선경> 등과 같은 의미의 선경(禪經)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원각경>은 선경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보수조사연구원의 제36차 월례발표회에서 조운호(전남대 철학과 강사·사진)씨는 "비록 선불교와의 관련을 시사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선종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성립한 선경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기존 불교계의 시각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각경>을 선경으로 분류해 왔던 불교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우선 <원각경>이 한국불교에 소개, 유통되었을 때 여래장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원각경>의 사상적 기반은 선(禪)보다는 여래장 사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원각경>이 선경으로 알려진 이유를 "원각이란 용어는 선불교를 중심으로 널리 일반화되어, 본래성체(本來成佛)의 개념과 같이 선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즐겨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미륵사지 홈페이지 개설

백제 무왕(660~641)때 창건된 전북 익산신 금마면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으로 보게 됐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은 최근 미륵사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mireuksaji.org)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미륵사지 유물전

문화재 단신

시관에 전시돼 있는 각종 유물 143점과 전시실 안내, 미륵사지 발굴과정, 미륵사지 창건설화 및 역사적 배경 등이 사진과 함께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경북도는 26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인동 용수사 대정삼년명 금

동고' 등 11건을 도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2년 전 용수사 중창불사 때 발견된 '대정삼년명 금동고'는 1163년이란 제작연대가 기록돼 있다.

이밖에도 △안동 용수사 금호비 △영천 은해사 중암암 삼층석탑 △경산 불굴사 석조입불상 △의성 중흥리 석불좌상 △용문도수토관 관련 각석문(3건) △고령 죽유총탁 △청도 동헌 등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과연 실화일까 설화일까

의상과 선묘 이야기

도업 스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중국불적당사님의 일원으로 청도행 비행을 하면서 필자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의상 스님과 선묘당자에 얽힌 이야기는 실화인지, 아니면 설화인지 하는 점이다. 또 설화라면 어디까지가 실화이고 어디까지가 설화인지 궁금했다. 실화 반 설화 반이라면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전해오고 있을까 라는 것이었다.

왜 '당신라국의상전'인가

다른 하나는 <송고승전>을 쓴 찬녕(贊寧: 919-1002)의 당시 국가 의식 내지 선묘 연사(戀事)에 관한 시각에 대한 것이었다.

찬녕은 신라의 화엄법사 의상과 당나라 선묘당자에 얽힌 구도와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제목을 '당신라국의상전(唐新羅國義相傳)'이라 불렀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라국의상전'이라 함이 당연할 것 같은데 찬녕은 왜 당(唐)이라는 글자를 앞에 붙여 '당신라국의상전'이라 했을까. 당나라 의상의 전기 전이라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다. 찬녕은 왜 그랬을까하는 의문이었다.

청도에 도착해서 고려정관비 제막식에 참석하고 적산법화원을 돌아보면서 내 머리 속에는 왜 그랬을까? 의상과 선묘당자 얘기는 과연 꾸며진 설화일까? 13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한편의 드라마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설화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까?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면 선묘화룡(善妙化龍)의 설화는 왜 만들어졌고 그럴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등주(登州)에 가면 찬녕 스님이 그렇게 기록한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찬녕 스님이 '당신라국의상전'이라 제목을 붙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등등의 생각으로 내 머리 속은 복잡하였다.

2000년이 저물어 가는 12월 27일 정오가 한참 지난 시각에 봉래(逢來)시에 도착했다. 등지(登地) 설화봉에 비까지 내리니 여행자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661년 어느 날 화엄을 배우게



다는 구법 일념으로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해, 낙선 등주로(登州路) 거리를 헤매다 불교신도인 유지인(劉至仁) 거사 집에서 객(客)을 달랠 의상스님을 생각하니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이 솟아났다.

650년경 신라불교는 한창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꽃봉오리였다. 원광, 자장과 같은 선구자가 구법을 하고 돌아와서 불법을 전했지만 아직 화엄의 꽃이 만개하지 못했다. 원효와 의상은 불화엄(佛華嚴)의 꽃을 피우고 불과(佛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650년에 입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제2차로 구법의 길을 떠났으나 원효는 중도에서 자각(自覺)의 법회(法會)를 맞았고, 홀로 남은 의상은 초지(草池)의 뜻으로 외롭고 험난한 뱃길에 올



○의상대사가 임향한 곳으로 알려진 등주항의 모습. 그 뒤로 선묘설화가 얽혀 있는 봉래각이 보인다.

랐던 것이다.

그때의 모습을 <삼국유사>에는 "영화초년에 (의상)은 마침 당나라 사신이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으므로 그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 처음 양주(揚州)에 머무르니, 주장(州將) 유지인이 의상을 관청안에 머무르게 하고 대접하는 것이 매우 성대했다"(<송고승전>에는 총장 2년에 장사배를 타고 등주의 해안에 도착했다고 되어있다고 전하고 있다.

등주에 도착한 의상 스님

이곳 등주에 도착한 의상은 재가 불자인 유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의 불법에 관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지상산으로 가는 길을 물기도 했을 것이다. 지상산 지엄 스님에 관한 얘기를 들으며 그에 대한 정을 더욱 다져갔을 것이다. 그러다 지금 봉래각이 있는 이곳 해안에 올라 동쪽으로 신라를 향해 삼배예불을 드리기도 했을 것이다.

화엄경 대강좌

한정섭 법사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약찬게·법성계·세주묘엄품



정규반(50명) 3월 5일
통신반(30명) 오후 7시 개강

화엄경 제1회인 보리장회의 장면을 묘사한 세주묘엄품에서 부처님은 정각을 이롭고 동시에 비로자나불인 법신과 한몸이 되었다. 이어 수많은 보살과 호법신중들의 세존의 정각의 덕을 찬탄하다. 약찬게는 화엄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의상스님의 법성계는 화엄경 사상을 압축요약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화엄경 세주묘엄품
- 약찬게·법성계
- 화엄경 십지품
- 화엄경 입법계품
- 화엄경 보현행원품·여래출현품
- 대승불교사상(불·보살사상)
- 보성론(여래장사상)

박종 교수
관세음보문품 대강좌



정규반(50명) 3월 6일
통신반(30명) 오후 7시 개강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구제원력과, 32방편의 보문시현으로 중생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가슴에 새겨 전법활동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법화경 제17분별공덕품에서 ~ 제28분현보살권발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법화경 방편품
- 법화경 여래수랑품
- 법화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비교종교론
- 금강경
-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근본불교 대강좌



정규반(30명) 3월 8일
통신반(30명) 오후 4시 개강

근본불교란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 초기 경전군체인 아함·반야·법화·화엄·정토로 이어지며, 아함경과 대승경전을 아우르는 최봉수 교수의 명쾌하고 전후내용이 일목요연한 대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근본불교 연기설
- 반야사상(금강경)
- 화엄사상(십지품)
- 법화사상
- 정토사상(무량수경)
- 근본불교 업설

송찬우 교수
불교경전 통신 대강좌



통신반(30명)

십여년동안 부처님의 주옥같은 한문원전강좌를 열여 경전의 깊은 묘리와 심심이 묘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던 송찬우 교수님의 경전통신 대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통신대강좌 A코스

- 반야심경, 금강경 · 능엄경 1,2권 · 능엄경 3,4
- 능엄경 5,6권 · 능엄경 7,8권 · 능엄경 9,10권

통신대강좌 B코스

- 반야심경, 금강경 · 유마경 · 원각경
- 육조단경 · 조론 · 대승기신론